

선메디컬센터 선병원, AI 기반 카카오 '케어챗' 도입

입력 2026.01.15. 오전 10:37



선병원 제공

선메디컬센터 선병원은 19일부터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의료 소통 서비스인 '카카오 케어챗(Kakao CareChat)'을 도입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 케어챗은 AI를 활용해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의료 특화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료 예약과 예약 확인, 진료 일정 안내, 병원 이용 정보 등을 자동화·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환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필요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준비사항이나 예약 변경 등 반복적인 문의가 많았던 영역을 AI가 자동 응대함으로써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진과 직원의 업무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선병원의 설명이다.

선병원 관계자는 "카카오의 AI 기반 케어챗 도입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인 기자(yheyin@daejonilbo.com)

Copyright © 대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63145>
